

(鄭靖和)
정정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살림살이를 말하다

글. 김형목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민족운명에 동참하는 여성으로 거듭나다

19세기 말엽부터 한국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는 '변혁시대'의 연속이었다. 동학혁명운동·청일전쟁·을미사변·아관파천·만민공동회 등은 당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명사회 건설과 자주독립 국가를 수립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제국주의 열강은 자국 이익을 위하여 약소국과 맺은 조약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국제적인 신의는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국제적인 미아' 신세나 다름없었다. 일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한국 식민지화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진력하였다. 이제 나라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국내에서 국권수호를 위한 대안은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전쟁으로 전개되었다. 일제는 민족구성원 사이에 대립·갈등을 조장하는 한편 친일세력을 사주하는 등 적진 분열을 도모하였다. 헤이그특사사건을 빌미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보류인 군대마저도 해산시키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선각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중국·러시아·미주 등지로 망명길을 떠났다. 이는 국외독립운동기 건설에 의한 항일독립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장차 미일전쟁·러일전쟁·중일전쟁 발발에 즈음하여 여기에 편승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조국광복을 쟁취하고자 했다. 경술국치를 전후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확산



01_ 정정화 가족 : 상하이에서 아들 후동과 함께 찍은 사진



02_ 김가진(정정화 시아버지) 일가 : 정정화가 시집오기 전 백운장에서 동농 김가진 일가 모습
 03_ 정정화 가족 : 남편 김의한과 아들 모습

되어 나갔다. 중국 동북지역이나 러시아 연해주 등지에 형성된 신한촌(新韓村)이나 한인촌은 이를 반증한다.

한편 일제강점기 많은 여성들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가장(家長) 결정에 따라 망명사회 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자 숙명이었다. 낯선 이국땅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언어불통에 따른 소통 부재는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는 요인이자 엄연한 현실이었다. 정정화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 행동에 옮겼다. 반공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이후 임시정부로 약칭)의 활동자금과 생계비 마련을 위해 연통제를 활용하여 세 차례나 국내 잠입을 감행하였다. 이후에도 3차례 더 감행하는 등 목숨을 걸고 칠혹 같은 야음을 틈타 압록강을 건너 국내로 들어왔다. 조그마한 쪽배에 의지한 결행은 혈기왕성한 청년조차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이었다. 그럼에도 20대 초반의 여성 정정화는 스스로 선택·실행에 옮겼다.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무수한 고초를 겪었으나 결코 좌절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갔을 뿐이다. 감내하기 힘든 난관조차도 더 이상 장애물로서 인식되지 않았다.

1920년 상하이로 갔을 당시 정정화는 단지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인 동농 김가진(金嘉鎭)을 모시고 남편인 성엄 김의한(金毅漢)을 도와야 한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 삼종지도를 당연한 아녀자의 숭고한 미덕으로 알고 행동하는 전통적인 여인에 불과한 존재였다. 현지 조계지의 이방인 생활은 커다란 충격과 아울러 현실인식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양한 경험과 신문·잡지를 통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체득하기에 이르렀다. 개인의 인락한 삶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의 중대함을 새삼스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정정화는 개인의 며느리나 범부의 아내로서 역할에 안주하지 않았다.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한 단계 발전시킨 인물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러한 평가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거나 미사여구가 아니다.

이면에 묻힌 임시정부 생활사를 알리다

임시정부에 관한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방대한 분량으로 정리·발간되었다. 전체적인 활동상이나 요인 개개인에 대한 연구도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면에 묻혀 있는 일상사에 관한 대부분은 거의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의 회고록이나 전기에서 일부만이 언급될 뿐이다. 일제 첩보문서나 공간된 자료 대부분은 대외활동 등을 중심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들 생활사는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할 수 있었는가 하는 숭고한 인생역정을 밝혀주는 귀중한 역사적인 문화유산이다. 나아가 풍부한 역사적인 경험을 오늘날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 소망과 달리 이러한 자료는 매우 희소할 뿐만 아니라 내용마저 상당히 소략하다.

조국에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배려로 집약할 수 있는 정정화의 참된 가치는 1987년 2월 발간된 『녹두꽃』에 그대로 녹아 있다. 1998년 8월에는 『녹두꽃』을 보완한 『장강일기』가 출판되었다. 구술사 형식으로 정리된 이 책은 임시정부 초기 운영되었던 연통제의 구체적 운영 실태 규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윤봉길의거 이후 임시정부가 감내한 8년에 걸친 대장정의 실상을 온전하게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특히 1932년 상하이로 떠나 항저우(杭州)→자싱(嘉興)→난징(南京)→광저우(廣州)→구이린(桂林)→치장(綦江)→충칭(重慶)까지 대장정에 돌입하였다. 여정은 사무실 임대료는 고사하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다. 일제의 무자비한 공습은 생명마저 위협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다행히 중국국민당의 지원과 후원으로 근근이 생명줄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식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빈궁한 일상사에 접근할 수 있는 꼭 필요하고 소중한 기록유산이다. 그럼에도 요인들 가족은 전혀 좌절하지 않고 오직 조국독립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는 투혼을 발휘하였다.

1920년 1월 초순 한겨울 밤 서울역. 20대 여인 정정화는 의주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최종 목적지는 상하이였고, 만날 사람은 이미 망



06. 임시정부 가족들 :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정정화 선생이다.(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임시정부 요인들인 이동녕·박찬익·김구·엄항섭 선생이다)



05. 정정화가 쓴 가족일기장

04. 『장강일기』 : 정정화 선생 일대기를 구술하여 발간한 것으로 임시정부 생활사가 오롯이 기록되어 있다.

명한 시아버지와 남편이었다. 떠나는 심정은 불안함과 착착함이 착종하는 처음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생소한 곳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고난의 여정임이 틀림없었으나 포기하기에는 이미 확고하게 결심한 뒤였다. 어차피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 아닌가. 의주를 거쳐 압록강철교를 무사히 통과하여 낯선 평토편(奉天)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열차로 산해관(山海關)과 텐진(天津)·난징을 지나 마침내 목적지 상하이에 안착할 수 있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1919년 10월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민족대동단 총재였던 시아버지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망을 피하여 감쪽같이 망명에 성공했다. 안둥(安東, 현 丹東)에서 이룡양행(怡隆洋行)을 경영하는 에이레 출신 조오지 엘 쇼우(George L. Shaw)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들 망명은 상하이 임시정부는 물론 국외 항일세력에게 새로운 독립운동을 모색하는 계기였다. 반면 일제는 고위관료를 지낸 동농의 망명과 이어진 의친왕 망명기도로 당황하였다. 무자비하게 폭압적인 식민지배의 실체가 만천하에 폭로되었기 때문이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국내로 잠입하다

만남의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이곳에 오기 이전까지 임시정부에 대한 기대는 대단하였다.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지사들을 보면서 생계유지가 가장 급선무이자 현실적인 문제로서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현지에서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시아버지와 남편 등과 의논한 후 임시정부 밀령에 따라 국내 잠입을 결행하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상하이에서 이룡양행 배편을 이용하여 단둥에 도착하였다. 단둥에서 최석순(崔錫淳) 도움으로 무사히 신의주에 도착하여 세창양복점에서 하루 묵고 서울로 들어오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기차표까지 마련해 주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몸조심하랴요. 자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도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야요. 기래야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니. 명심하랴요. 내레 솔직하게 한마디 하갓는데, 젊은 아주머니레, 더구나 귀골(貴骨)로 곱게 산 사람이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시다. 독립운동하는 유명한 사람들이레 하나같이 다 이런 험악한 일을 하는 건 아니디요? 기렇디요? 나 같은 늙이나 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

일제감점기 줄기차게 전개된 항일운동은 이처럼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인사들 도움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기대와 달리 서울에서 모금활동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3·1운동 이후 고조되던 민족의식은 기만적인 문화통치에 의하여 점차 퇴색하고 있었다. 독립운동자금을 내놓을 만한 자산가나 망명가는 만남조차 꺼리는 분위기였다. 겨우 일가 도움으로 모금한 돈을 가지고 잠입한 경로를 역순으로 다시 상하이로 향하였다. 압록강에 쪽배를 띄웠으나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왜정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었다. 3일을 걸려 단둥에서 상하이까지 도착하였다. 예상보다 적은 독립자금 모금에도 요인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동안 임시정부 가족과 동포사회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정정화였다.

1921년 늦은 봄 두 번째로 국내에 밀파되었다. 맡은 임무를 성공리 끝내고 상하이에 안착할 수 있었다. 와중에 단둥과 신의주 거점은 일경에 발각되고 말았다. 쇼우는 단둥에서 추방되었으며, 이세창은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 상하이로 왔다가 밀정으로 오해를 받아 많은 고초를 겪었다. 팔촌 오빠인 정필화도 임시정부 경무국에 체포·처단되는 쓰라린 비애를 맛보았다. 일제의 회유에 따른 팽배한 불신감은 이러한 상황을 연출시킬 수밖에 없는 긴박한 분위기였다. 곤궁한 생활과 감시의 눈초리가 도사리고 있는 곳은 바로 상하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학열에 불을 지피다

현지에는 여성단체인 대한부인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신식교육을 받은 이른바 신여성이었다. 돌출적인 행동과 오만함 등으로 교민사회에서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교포사회 분열상은 생각 이상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었다. 정정화는 이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문을 수용하는데 진력하였다. 어릴 때부터 배운 한학은 이를 가능케 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성재 이시영(李始榮)과 세관 유인옥(柳寅旭)은 좋은 스승이었다. 성재는 한학과 역사 서적 등을 가져다주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유인옥은 국제정세를 이해하기 위하여 영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영어 공부를 성심껏 도와주었다. 중국 고전과 접할 수 있는 모든 책들을 닦치는 대로 읽었다. 독학에 가까운 학습이었으나 시세변화를 점차 인식할 정도로 즐거움의 연속이었다.

4번째 국내로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미국으로 유학을 요구했다. 정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완고한 본인데도 이를 흔쾌히 허락하였다. 그런데 갑작스런 시아버지 죽음으로 원대한 계획은 줄지에 공든 탑이 되고 말았다. 미국유학은 좌절되었으나 학문에 대한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임시정부 요인들을 도와주면서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는 더욱 절실한 현안으로 다가왔다. 다섯 번째 국내로 들어와 6개월 동안 친정집에서 문학·역사와 관련된 서적을 독서로 소일할 만큼 열성적이었다. 방대한 독서는 자신의 나이갈 올바른 방향타를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꾸리다

상하이 생활은 그저 하루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으면 행복한 나날이었다. 식생활은 주먹밥이 밥을 면할 정도였다. 반찬은 밥을 먹기 위한 최소한에 불과한 한 두 가지뿐이었다. 미역이나 김 따위는 드물었으나 배추 종류는 다양하여 여러 가지 반찬을 해먹을 수 있었다. 이마저 풍성하게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로 한정되었다. 더욱이 배추로 만드는 반찬이 제일 가격이 저렴하였기 때문에 소금에 고춧가루를 범벅해서 절여 놓았다가 먹었다.

의복은 한복이 아니라 전통적인 중국옷인 찡싼(長衫)을 입었다.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 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아주 혈값에 천을 사서 직접 만들었다. 국내를 들어올 때도 신의주까지 이러한 옷을 입고 와서 싸가지온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일종의 변장인 셈이다.

신발도 식생활이나 의생활처럼 구두나 운동화 등 가죽·고무제품은 엄두도 내지 못할 실정이었다. 험 형짚 조각을 몇 겹씩 겹쳐서 발 모양을 내고 송곳으로 구멍을 내서 단단한 실로 촘촘하고 단단하게 바닥을 누벼서 신고 다녔다. 이마저 바지런히 살림을 잘 꾸리는 집안에서 가능할 뿐이다. 대부분은 짚세기를 끌고 다니는 정도로 빈약하였다. 구두는 고사하고 운동화만 신고 다녀도 사치에 속할 정도였다. 임시정부와 함께 한 26년 동안에 받은 선물 중 최고의 특별한 선물은 구두였다. 이처럼 의식주는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누더기를 걸치고 사는 빈궁한 살림살이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 하나 불평불만은 거의 없었다.



07_ 정정화 가족사진(1936.4.21.)

임시정부 안사람꾼이 되다

임시정부 망명생활이 길어지면서 대가족을 구성하는 여성들 모두가 자녀들을 미래 독립운동가로 키우는 것을 엄정한 본분으로 인식되는 분위기였다. 중차대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심인물로 정정화가 우뚝 서 있었다. 정정화는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원로 독립운동가들의 수발을 자청해서 맡았다. 임시정부나 한국 광복군과 관련된 대소사가 있으면 여성들을 이끌어 책임지고 치렀다. 부군 김의한은 정정화와 매사를 상의하여 처리할 만큼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자상한 남편에 대한 보답으로 정정화도 운동노선과 대인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정화는 천부적으로 겸손함과 근면성을 갖추었으며, 주위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고단한 피난살이 속에서도 대가족이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와 같은 '종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절반을 떠받친 여성'의 앞자리에 정정화를 앉히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안사람꾼으로 다가오는 이미지는 바로 정정화였다.

우리는 정정화의 삶을 통하여 임시정부의 생활사를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다. 임시정부 요인과 대가족들은 일본군의 야만적인 공습 속에서 어떻게 목숨을 지켰는지, 하루하루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피난살이 속에서도 2세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대가족이 어떻게 큰 잡음 없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를 정정화의 삶을 통하여 생생하게 다갈 수 있다.

정정화·김의한 부부의 삶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통일단결의 정신이다. 정정화 부부는 몇 명 되지 않는 중국 관내의 한인세력조차 이리 갈리고 저리 찢겨서 이렇다 할 중심세력이 없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들은 중국 관내와 옌안(延安)의 독립운동세력이 좌우이념을 뛰어넘어 하나로 합치기를 갈망하였다. 정정화 부부는 시종일관 김구와 정치노선을 함께 하였지만, 당파를 달리하는 김구식·최석순 가족과도 친하게 지냈다. 한국독립당 일부 인사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김원봉을 편견 없이 대하였다.

이념적인 갈등을 대동단결로 이끌어내다

정정화가 좌우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은 일견 평범하고 소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식견에서 나온 것이었다. 김의한이 좌우통합을 추진하는 김구를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한국독립당 내 보수인사들과 의견을 달리할 때에도 큰 힘이 되어주었다.

정정화 부부가 해방 후에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정정화가 이승만 정부가 제의한 도지사급 감찰위원 자리를 거절한 것도 당연한 선택이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국에서도 정정화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자식을 올곧게 키웠고, 후손들은 대를 이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였다. 1982년 정부는 정정화에게 건국훈장 5등급에 해당하는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정정화가 민족해방운동과정에서 수행한 역할과



08_ 상하이 임시정부의 여인들(정정화, 엄항섭의 부인, 민필호 어머니 이현경 등)



09_ 한국혁명여성동맹 창립 기념(1940.6.17.) :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정정화 선생이다.

비교할 때 인색한 평가를 받은 셈이다.

정정화는 1991년 11월 2일 운명해 대전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되었다. 정정화가 사망하기 직전인 1990년 대한민국 정부는 6·25전쟁 때 납북되어 평양에서 사망한 남편 김의한에게 건국훈장 3등급에 해당하는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정정화의 삶은 그가 사망한 후에도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감동을 주고 있다. 2001년에는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이 '8월의 독립운동가'로 정정화를 선정하였다. 독립기념관은 한 달 동안 정정화와 관련된 특별전시를 개최했다. 1998년 8월 극단 민에는 극단창립 25주년 겸 대한민국정부 수립50주년 기념공연으로 정정화의 일대기를 다룬 연극 『아, 정정화』를 연강홀에서 초연하였다. 2001년 8~9월에는 극단 독립극장이 『아, 정정화』를 『치마』로 바꾸어 대학로 문예회관대극장에서 공연했다. 2002년 8월 극단 독립극장은 일본의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에서 『치마』를 공연하였다. 510석의 공연장이 4회 모두 만석을 이룰 만큼 성황이었다. 정정화의 삶은 공연이 끝난 다음 민단과 조총련계 모두가 출연진들을 격려할 정도로 좌우이념을 초월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다

정정화는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이다. 90평생은 오직 조국광복과 민주화를 위한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대기인 『녹두꽃』과 『장강일기』, 연극 『아, 정정화』와 『치마』 등은 나라사랑의 진수를 잘 보여주었다. 그리고 투철한 기록문화의 정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내나 국외를 통틀어 항일투쟁의 대열에 섰던 단체나 개인에 대한 연구는 보다 세세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포함되어야만 비로소 단체의 성격이나 개인의 활동노선이 바로 밝혀지리라 믿는 까닭에 국외의 광복진선에서 26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내 소박한 자격으로 이 글을 엮게 된 만큼 간혹 내 판단이 그릇되었을 수도 없지 않겠다” 항일투사로서 엄격한 자기검손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철부지 소녀 정묘희(아명은 동갑내기 김의한과 10살에 결혼하였다. 당시 조흔 풍습에 따라 철부지 어린 소녀가 아내로 변신하였다. 요즘은 전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이를 거역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10_ 3.1유치원 추계 개학 기념사진(1941.10.10.) : 뒷줄 맨 오른쪽이 정정화 선생이다(중국 충칭)

나이가 아니었다. 그저 묵묵히 현실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소꿉놀이 같은 결혼생활이 시작되었다. 10년 후 시아버지와 남편의 상하이 망명은 그녀의 운명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20년대 아녀자 몸으로 죽음의 사각지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조국광복 때까지는 짧지 않은 26년간 임시정부 안살림을 거의 도맡았다. 이후 운명하는 순간까지 조국통일과 민주화를 위하여 험난한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시아버지에 대한 호심이 임시정부 사랑으로 이어지다

3·1운동 직후 시아버지는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족대동단 총재를 맡았다. 국내에서 활동이 여의치 않자, 남편과 함께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이듬해 75세인 시아버지를 모셔한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상하이로 달려갔다. 현지 생활은 상상을 초월한 빈궁한 그 자체였다.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하여 국내에 잠입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당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활동 중 시아버지 사망 소식을 들었다. 이를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했다. 상하이로 되돌아가 임시정부 요인들을 성심껏 모시기로 결심하였다. 이를 운명이자 나라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담담하게 실천했다.

이 책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잔잔하게 그렸다. 정정화가 꿈꾼 세상이 무엇인가를 부분적이거나 보여준다. 이는 그녀만의 인생역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임시정부 수립에 즈음하여 그들 삶의 무게를 한 번 짚어보면 어떨까. 독립운동사에서 여성들 역할도 되짚어보자. 그리고 구술사가 지닌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음미하자. **IN**

필자 소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편집위원장·한국교육사학회 연구이사·한국사학회 지역이사·최용신기념관 지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는 『대한제국기 아학운동』 『한국근현대인물강의』(공저), 『최송설당의 생애와 육영사업』(공저), 『교육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5』 『최용신, 기억 속에서 아시아로 걸어오다』(공저), 『안중근과 동양평화론』(공저), 『니헤석, 한국근대사를 거닐다』(공저), 『김광제, 나라빛 청산이 독립국가 건설이다』 등이 있다.